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사는 나라
방정환 선생님이 꿈꾸던 세상입니다”

보도자료

배 포 일 2015년 4월 14일 (화)

문 의 한국방정환재단 방정환전집간행위원회

간사 엄 희 경 박사 (010-6273-5132)

오월의 첫 날, 어린이 세상을 열었던 방정환 선생을 기리며

방정환과 어린이, 전집을 새로 만들며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간부진이면서, 『미생』 같은 초베스트셀러를 썼으며, 법륜 스님보다 더 인기 있는 강연자고, 특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고작 나이 스물다섯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오늘날에야 불가능한 일이지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방정환은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번역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냈고, 10만 이상의 독자를 확보한 잡지 『어린이』의 주간이었으며, 개벽사가 발간한 거의 모든 잡지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의 동화구연과 강연회에는 청중이 너무 많이 몰려 좌석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거의 모든 아동문학 작가들이 그의 제자로 출발하여 동료가 되었고, 소년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으며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는 1899년생이니, 20대 중반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재다능도 한 몫 했겠지만, 시대와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도서출판 창비와 함께 새로 방정환 전집을 만든다. 방정환의 문집 또는 전집은 1940년 박문서관에서 한 권으로 된 『소파전집』을 낸 이후 2001년까지 10번 정도 발간되었다. 그러나 ‘소파아동문학 전집’과 같은 아동문학 작품들만 모아 놓은 것도 있고,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록되지 않은 글도 많았다. 대체 왜 이렇게 전집이 많이 발간되었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을까? 1940년 처음 『소파전집』이 나왔을 때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지만,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다고 했다. 소실도 소실이라니와, 방정환이 하도 많은 필명을 사용했던 것도 원인이다. 흔히 알려진 소파(小波)나 잔물결 외에도 수십 개의 필명으로 수많은 원고를 썼다. 방정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원고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와 매체에 글을 써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도 방정환의 필명에 대한 학문적 연

구와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숨은 방정환, 진짜 방정환을 찾는 지적인 도전이라 할 터인데, 이런 노력들은 근대 문학과 사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승화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새로 발간하는 방정환 전집은 오늘날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방정환과 그의 시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되, 많은 사람들이 방정환의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전집 간행위원회(위원장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는 교육계와 아동문학, 어린이 인권과 문화예술계의 원로와 중진으로 구성하되, 아동문학, 역사학, 교육학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꾸려 전집을 만드는 일을 실제로 진행하게 했다. 아동문학 연구자이며 비평가인 원종찬 교수가 편집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 『소파 방정환과 근대 아동문학』이라는 저서를 낸 염희경 간사가 편집의 실무를 진행한다. 이기훈, 이윤미, 이재복, 이주영, 이지원, 정용서, 조은숙 등 아동문학과 교육학, 한국사 전공자들이 엄밀한 고증과 해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정환과 그의 시대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한다. 새로 발굴된 작품, 논쟁 중인 작품들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맞춤법으로 바꾸고 충분한 해설을 붙여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집을 만들 것이다. 그동안 한국방정환재단은 방정환의 작품 목록과 자료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전문 인력이 직접 입력하고 전문가들이 교열, 해설하는 작업을 거쳐 2016년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출판 창비가 이 작업에 동참하여 전집 출판을 맡기로 했다.

방정환 전집 간행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집 간행의 방침을 알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와 함께 발간식 및 문화공연〈방정환과 어린이, 전집을 새로 만들며〉를 2015년 5월 1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의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연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이 행사의 1부에서는 「전기에 나타난 방정환 이미지」(염희경), 「방정환 전집의 현황과 발간 방향」(조은숙) 등의 강연과 학술보고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어린이책시민연대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방정환의 동극 〈노래주머니〉를 공연하고 신민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가 〈사월 그믐날 밤〉을 들려준다. 이어 어린이도서연구회 여을환 이사장과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공동대표가 방정환 전집에 바라는 바를 전한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방정환의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우선 지금까지 간행된 방정환 전집류와 어린이용 도서, 그림책, 방정환의 전기와 연구서, 그리고 방정환이 만든 잡지 『어린이』의 영인본 등 도서류가 전시된다. 또 방정환의 작품 〈칠칠단의 비밀〉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와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방정환의 시에 백창우가 새롭게 곡을 붙인 동요집 등도 함께 전시되어 어린이들에게 ‘방정환 선생님’의 행적을 실제로 느끼게 해 줄 것이다.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방정환과 어린이, 전집을 새로 만들며

행사일정

일시 : 5월 1일(금) 오후 3:00 (접수 : 2:40~3:00)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 (지하 1층)
 주최 : 방정환전집간행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주관 : (재)한국방정환재단
 후원 : 도서출판 경진, (주)사계절출판사, (주)창비,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사 회 : 이 기 훈 (목포대)

1부

개회사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인사말	최원식 (간행위원장)
경과보고	원종찬 (편집위원장)
전기에 나타난 방정환 이미지	염희경 (인하대)
방정환 전집의 현황과 발간 방향	조은숙 (춘천교대)

2부

어린이들이 펼치는 동극 공연 - 방정환의 <노래주머니>	유지호(동작초 1학년) 외 9명(어린이책시민연대)
동화 낭독 : <사월 그믐날 밤>	신민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
방정환 전집에 바란다	여을환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이진영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청중 발언	
폐회사	